

4.19혁명 66주년 기념 및 (사) 4월회 제35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윤봉한 기자 | 승인 2026.04.15 12:01

4.19 정신 계승 문화상 시상에 이어, 미래화 주역들에게 4.19장학금 수여식도 진행



(사진) 정용상 (사)사월회 회장이 창립 35주년 기념식사를 하고 있다.

[내외뉴스통신] 윤봉한 기자

(사) 4월회(회장 정용상)는 4월 14일 15시부터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 홀에서 4.19 민주혁명 제66주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사)4월회 창립 제3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또한 제27회 4.19문화상 시상식 및 제17회 4.19장학금 수여식을 동시에 개최하였다.

(사)4월회 제35주년 창립기념식은 권세준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국민의례, 정용상 회장의 기념사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의 축사에 이어, 청년대표의 선창에 따라 4월회 행동강령을 제창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4.19문화상은 4.19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된 상으로, 4.19 민주정신의 계승·발전과 그 실천을 통하여 정의로운 사회기풍 진작 및 참신한 민족문화 창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적을 현양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금년도 제27회 4.19문화상은 고 서명숙은 (사)제주올레 이사장이 수상하였다. 서 씨는 필생의 신념으로 총 27개 코스 437킬로에 이르는 제주올레 길을 만들어 트레킹 문화 붐을 조성함으로써 공동체 회복, 평화와 교류의 문화의 확산, 주민소통과 국민 대통합을 선도하였고, 4.19정신을 현창·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진) (사)사월회 장학금을 수령한 영광의 얼굴들

4.19장학생은 4.19혁명에 참여한 학교의 후배 학생, 4.19관련단체 회원 유자녀, 북탈민가정 자녀, 이주배경(다문화)가정 자녀 중에서 선발하는데, 이번 제17회 4.19장학생으로는 환일고등학교 권성대 학생 외 10명이 선발되었다. 4.19장학재단은 지금까지 200여명(단체)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들은 4.19정신의 청년화, 4.19정신의 21세기화, 4.19정신의 글로벌화를 향도하는 미래의 주역들이다.



(사진)사월혁명의 정신을 기리는 (사)사월회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4.19민주혁명의 의의

지금으로부터 66년 전 봄 날, 자유, 민주, 정의를 기치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청년 학도들을 중심으로 분연히 일어난 4.19혁명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국민이 주인이라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역사적으로 증명하였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국민의 힘으로 직접 확인시킨 세계사적인 대서사이다. 4.19정신은 대한민국 국가정통성의 핵심 축이다.

— (사)4월회 소개

(사)4월회는 1970년 무명회로 창립되어 비공개적으로 활동하다가 1991년 4월 (사)4월회로 개칭하였다.

4.19 혁명을 기리는 순수 민간단체로 4.19 당시 학생운동 주역과 그 후대들이 모여,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청사에 길이 빛날 4.19정신을 현창·선양·계승·발전시켜, 우리 사회의 올바른 개혁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4월혁명정신의 현창·계승을 위한 제반사업 추진,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초청특강 및 심포지움 개최, 4.19문화상 시상, 4.19장학금 수여, 청소년의 역사·문화의식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역사·문화탐방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끝)

unacorea@hotmail.com



윤봉한 기자 unacorea@hotmail.com

